

HKJ

한양대학교 무용학과 한국무용PART 소식지

133-791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산17 한양대학교 체육대학 무용학과 331호 TEL 2290-1334 www.kumdance.or.kr



소식지 창간에 부쳐

“즐거움 함께하며, 슬픔을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한국무용 학생들이 인사드립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흥륭한 교수님을 모시고 많은 인재를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희의 목소리가 낮지 않는 것 같아 감히 어린 저희들이 작은 소리를 내보려고 합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더 많지만 '시작(처음)'이라는 설레임과 도전에 그 뜻을 두는 HKJ(Hanyang Korean dance Journal)에 많은 격려와 축하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는 이 HKJ에 1년간 한양대 한국무용의 작은 소식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창간호를 비롯하여 저의 무용학과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해 왔으며, 얼마나 많은 성장을 해 왔는지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HKJ는 한해의 마지막 달에 발간되며, 우리학과 한국무용의 재학생 및 선배님들의 소식을 같이 공유하면서 즐거움은 함께 하며, 슬픔은 나눌 수 있는 그런 HKJ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은 소식 하나에도 귀를 기우려 주시고 함께 기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지면안내 2 공연리뷰 - '함 II', '복간 IV'

지난 9월 초연된 '함 II' 와 11월에 무대에 올려진 기획공연 '복간 IV'를 리뷰해 본다.



박서옥 · 심윤정 동문인터뷰 3

기독교무용의 대표주자인 박서옥 동문과 무용 조명 전문가 심윤정 동문을 만나보았다.



2001년 김운미 교수님 활동

논문 발표

2001년 8월에 한국무용교육학회에서 발행하는 무용 교육학회지에 "1970 한국무용교육에 대한 예술사회학적 접근" 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제 3회 동양연극학과 국제학술학회

일시: 2001년 10월 5일(금) 오후 1시~7시30분
장소: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6층 첨단 강의실

주최: 동양연극학회, 한국무용연구회

아시아 춤의 근대화와 한국의 근대춤에 대한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김운미 교수님은 제2부 한국 근대춤의 전개와 연구방법의 모색해보는 자리에서 "한국 근대 교육무용과 춤의 근대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춤」지 座談

2001년 10월호 「춤」지에 "客觀的인 실력이 지원금

심사의 기준이 되어야"라는 주제의 좌담 내용이 실렸습니다. 이 좌담은 김영희 교수님(이화여대), 오은희 교수님(서울예술대)과 함께 춤지 편집자 조은경님의 사회로 2001년 9월 10일 오전 11시에 열렸습니다. 이 좌담에서 김운미 교수님께서는 춤 작품을 위한 안무료 책임이 창작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고 그럴 때 비로서 춤계를 위한 지원 효과가 더 희망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원금 선정 시 명확한 선정기준이 없고, 그 선례에 대한 기록과 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어지 않기 때문에 지원금 선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심사 기준은 그 기준이 지속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평가로 여러분의 심사를 통해 좀 더 다양한 심사방법으로 심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국동양예술학회 제5회 학술대회

일시: 2001년 11월 24일(토), 오후 9:30~19:00
장소: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학(종합강의동 A동)
5층 첨단강의실
주최: 한국동양예술학회

소식으로 작은 미소가 번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글을 전합니다.

저희 한국무용파트는 올해 초 재학생들과 졸업생, 교수님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1박2일이라는 짧다면 정말 짧은 일정이었지만 우리 한국파트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여행을 다녀오면서 어렵게 만 느꼈던 선배님들이 조금은 기꺼워 졌고, 저희가 몰랐던 부분까지만 깨닫게 되어 선배님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학생들의 선후배 관계 역시 형식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정말 의미있고 선배를 아끼고 후배를 챙길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HKJ를 보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 과는 정말 이렇게 회복하고 빛날게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무용단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지만 저희의 홍보 미숙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였습니다.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저의 무용단 여행도 해 보시고 많은 흔적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날이 발전되어 가는 무용단의 방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中國藝術의 流入과 創造의 變容(二)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제1부의 세번째로 이종숙(용인대) 교수님의 "조선조 宮中 樂舞의 대목문화 수용 범주"라는 발표를 김운미 교수님께서 논평하셨습니다.

KUM Dance Company 공연활동

2001년 3월 1일에 경기도 문화 예술회관에서 82주년 3·1절 기념 행사로 3·1운동을 비롯한 일제하 민족독립운동사를 소재로 한 '1919' (1999년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지원 선정작품) 공연을 하였다.

2001년 9월 18일에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함(面) II'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 선정작품)을 공연하였다. '함(面) II'는 지난 해 〈한국무용제전 2000〉에서 올렸던 '함(面) I'에 이은 연작이다.

2001년 11월 26일에 씨어터 제로에서 '복간 IV'를 공연하였다. 지체육의 '노란국화-싸늘한 휴식', 김은정의 '눈물에 맞친 무지개', 이현경의 '거울아리로 길이', 장윤기의 '신기루에 간 하다' 등 모두 4작품을 선보였다.



2001년 경기도 3·1절 기념식장에서 공연된 '1919'의 한장면

김운미 무용단은 독립운동가들의 애국혼을 표현한 '조선의 눈보라' (9%), 백의민족의 끗음을 그린 '흰 웃' (65%) 한민족이 역사속에서 어떻게 저항했는지를 다룬 '뿌리' (99) 등 민족성이 깊은 무용공연 활동을 하셨습니다.

김운미 교수님 보훈문화상 수상

최근 이러한 김 교수의 관심과 애정이 결실을 맺어 김운미 무용단은 국가보훈처(처장 이재달)와 문화일보(사장 김정국)가 공동으로 제정한 '2001 보훈문화상-문화예술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6월 11일 문화일보사에서 열린 '2001 보훈문화상' 시상식에서 김 교수의 무용단(KUM Dance Company)은 3·1독립만세운동을 비롯해 일제하 독립운동사를 소재로 한 공연을 통하여 민족혼을 복돋우고 보훈의식 함양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주택건설 사업협회(예우증진), 지갑종 유엔한국전참전국회회장(기념사업), 한국근현대시학회(학술연구), 서대문형무소 역사관(교육홍보)과 수상의 영광을 함께 하였습니다.

11/12 18:22



함(函) II

'함'의 이미지로 함축시킨 '女性과 결혼'

지난 2001년 9월 18일 대학로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선보여진 「函(함) II」(서울시 문화예술진흥 선정 작품)은 [2000 한국무용제]에 참가했던 「函(함) I」을 재구성하여 선보이게 된 작품이었다. 안무자에 의하면 「函(함) I」에서는 여이라는 이미지가 가지는 형태적인 측면만을 보여준 반면에 「函(함) II」에서는 결혼을 전후로 한 여성들의 삶의 변화와 그에 따른 심리적 갈등, 그리고 시대의 변천에 따른 여성들의 삶의 방식을 좀 더 깊이 있게 표현하고자 하였다고 한다.

「함(函)」이라는 것은 혼례를 앞두고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예물과 혼서 지를 담아 보내는 상자로 단순히 예물을 주고받는 의식의 도구라기보다는 여성의 결혼(일부종사의 절개)과 죽음까지를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함을 받는다」는 의미는

복간(墨間) IV

젊은 안무가들의 '실험정신' 느낄 수 있는 무대

지난 2001년 11월 26일(월) 흥대앞 <씨어터 제로>에서 김윤미 무용단의 네번째 소극장 나들이가 선보여졌다. 墨間(복간)이란 「점과 선 사이의 여백」을 뜻하며 그 속에서 삶의 여유를 찾았던 옛 선인들의 모습을 되새겨 볼수록 우리 고유의 멋과 흥을 찾아낸다는 의도에서 기획공연 시리즈의 타이틀로 정해졌다고 한다. 그간의 공연들을 살펴보면 墨間 I 에서는 옛 시조와 죽음의 만남을 시도한 바 있고, 墨間 II에서는 꽃과 색, 향 속에 숨겨져 있는 옛 여인들

의 삶의 정서를 오늘의 춤으로 되살려 보고자 하였다. 이번 墨間 IV(장윤기 94), 김은정(94), 이현경(95), 지제육(92) 안무는 「정가」의 가곡과 시조를 현대의 춤사위로 재해석한 공연으로서 바쁘게 쟁이며 살아가는 일상에서 느린 것이 아름답다'는 정가의 여유를 담아낸 작품들이었다. 이중에서 지제육의 「노란국화」는 99년에 안무된 작품으로서 墨間 II에서 초연된 바 있으며 그 당시 「춤지」와 「댄스포럼」 등에서 그의 안무력을 인정받은 바 있는 작품이다. 장윤기 또한 墨間 II를 통해 처녀작을 발표한바 있으

름없는 형태로 입되어 춤동작에 있어서는 매우 테크닉적이면서도 동적인 면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면장면 넘어갈 때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의상에서 또한 거의 실루엣이 드러나 보이는 현대적 느낌의 의상으로 변화를 주었다. 이뿐만 아니라 음악에 있어서도 한국무용이라는 느낌을 주되 아래에 전자음악이라든지 일반 대중들이 아는 가요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한국무용공연에 대한 평소 대중들이 지루하다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탈피 시켜주는데 있어서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내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연극적인 요소를 기미시켜 관객들을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도 큰 영향력을 주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이 공연에서 크게 보아지는 것은 전체적인 구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설정들에 있어서 한국 창작무용에 대한 어떤 기본적 틀은 가지고 있음에 대하여 요즘 추세에 발맞추어 현대적인 요소를 적절하게 기미시켜 한국무용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느낌에 따른 고정관념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고 보아진다.



며, 이번이 그의 세 번째 작품이라 한다. 김은정, 이현경을 비롯한 이번 墨間 IV는 젊은 안무가들의 실험적이며 독창적이고 힘이 느껴지는 무대였다.

복간 공연을 보고 나서

관객과의 교감 위한 고민 필요

올해로 4번째 공연을 맞이하게 된 「복간 IV」는 우리의 선배님들이 선생님들의 작품세계를 들여다보고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공연이라 매년 나에게 큰 기대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선생님들의 복간 공연을 봄으로나서는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발전하고 성숙해져가는 작품들이 선보여지는 이 공연 자체로서 또 다른 재미와 배움의 장이 되었다.

3년이 넘게 소극장 나들이를 보면서 그때마다 기량의 향상과 각기 다른 색깔의 모습들로 작품을 풀어나기는 형식에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또한 느낄 수 있었다. 이에 더 나아가 나는 무용의 대중성을 대하여 생각하고 대중성과 예술성을 공유한 무용가가 되

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무용이 일반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연극이나 음악처럼 일반 대중들이 더 많이 함께 보고 느낄 수 있으면 무엇보다도 대중성을 찾아가는 것 또한 무용가가 생각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감히 말해본다. 이번 공연에서 한 가지 빠져 있었다고 느낀 것은 아마도 그 대중성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예술적인 자기 세계의 표현도 중요하지만 관객과의 진정한 교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확실히 나타낼 수 있는지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복간 공연이 좀 더 대중성 있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많이 창출해 낼 수 있는 성숙된 소극장 나들이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안지현 00학번)

정기공연을 마치며

신내림춤 보는 듯한 '비나리'

2001년 11월 1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정기공연에서 우리 한국페트는 1학년의 태평무, 2학년의 「밤의 소리」라는 창작무용, 그리고 3학년의 「비나리」를 선보였다. 우선 1학년이 공연한 태평무는 한국 궁중무용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춤으로 매우 뜻깊은 공연을 하게 되었던 것 같다. 또한 2학년의 「밤의 소리」라는 작품은 「성재수간도」에서 얻어 작곡된 가야금 드주곡을 간접함, 고독, 허무함을 심미적으로 표현하려 한 작품이었다. 그런데 이 가야금 음악은 일정하게 정해진 박자가 존재하지 않아 연습을 할 때 매우 큰 어려움이 따랐었다. 이에 이어 3학년 언니들

의 「비나리」라는 작품은 정말 신명나는 춤이었던 것 같다. 액을 막아주고 살을 푸는 듯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듯 하였다. 다시 말해 마치 신내림춤 구을 보는 듯 하였다.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쉬웠던 점은 관객이 많이 없어 우리 학교민의 축제 같이 막을 내렸다는 점이다. 앞으로 팝플랫이나 티켓을 공연 전에 더 빨리 만들어서 다른 학교에도 많이 홍보하고 또 졸업하신 선배님들께 더욱 빠른 시일 내에 알려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공연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려울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김우경 00학번)

공연소식

김신아 동문(95)
2001년 6월 14일, 문예회관 대극장
네번째 평론가회는 젊은 무용가 초청공연
김신아 인무의 「내가 깊은 곳에서」

장윤기 동문(94)
2001년 6월 23일, 국립극장 무대
(시)우리춤 예술원 정기공연
장윤기 인무의 「예악원 하루」

조남규(82), 송정은 무용단 정기공연 「길」
2001년 7월 14일, 군포 시민회관 대공연장
지제육 동문(92)
2001년 11월 3일, 국립극장 달오름
서울공연예술제 젊은 안무가를 위한 열린무대
지제육 인무의 「전태, 이중방정식」

박서옥 & 한양대학 사회교육원 선교무용부
2001년 12월 10일,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시는 곳에 머무시는 곳에』 (원작: 구악상서
'꽃기')

재학생

1. 월례발표회
2001년 5월 10일 ~5월 11일 한양예술극장
10일 ~ 2학년 11일 ~ 3학년
2. 서울공연예술제 아외 춤 페스티벌
2001년 11월 4일 마로니에공원 야외상설무대
1학년 태평무 2학년 밤의소리 3학년 비나리
3. 정기공연
2001년 11월 15일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
1학년 태평무 2학년 밤의소리 3학년 비나리
4. 졸업발표회
2001년 11월 30일, 한양예술극장

가시는 곳에 머무시는 곳에' 안무한 박서옥 동문 (66)

“기독교 무용 정립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2001년 12월 1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공연된 ‘가시는 곳에 머무시는 곳에’는 구악성서에 나오는 롯기의 말씀을 작품화한 것인데, 유다 베들레헴에 심한 흉년이 들어 모압 지방으로 떠나는 사람들 그 행렬 속에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 엘리미렉이 있었다.

엘리미렉은 그의 가족은 모압 지방에 기거하며 두 머느리를 맏아 하게된다. 불행하게도 남편과 두 아들은 모두 죽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두 자부만 남게 되는데,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입맞춤을 하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떠난다. 그런 중에 효심이 지극한 롯은 나오미를 따라 나서게 된다.

이에 그 두 사람의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밀렸던 우물은 넘치고 보리 추수할 때가 되었다. 롯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봉양하고자 밭에 나가 이삭을 줍는데 밭주인인 보아스를 만나게 된다. 보아스는 롯에게 친절을 베풀며 일꾼들에게 롯이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여 보태주라 이르게 된다. 나오미는 효심이 지극한 롯을 단장시켜 보아스가 있는 곳으로 가서 밭주에 누울 것을 청하게 되고, 롯이 보아스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물은 결혼을 하게 된다. 모든 군중들의 축하 속에 결혼을 하며 끊임에도 이어지고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인 성스러운 아이 “오벳”이 탄생하게 된다.



박서옥 동문은
1966년 서울 예술 고등학교 졸업
1970년 한양대학교 무용학과 졸업
1984년 동 대학원 졸업
1974-1981년 화이트사대 부속여자 고등학교 무용교사 역임
1981-1986년 “현무희” 초대 대표 역임
1984-현재 한양대학교 체육대학 무용학과 출강하고 계신다.

이러한 구약성서 중 ‘롯기’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이번 작품은 기독교 무용으로 기독교 무용의 대표주

자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정립되지 않은 기독교 무용을 선보여서 무용계의 이슈를 넓였고, 그것이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시작되어서 더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기독교 무용을 세우는데는 박서옥 선생님의 10년이 넘는 노력이 뛰어들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에서 무용학과가 처음 설립된 이회여자 대학은 채플 시간이 있는 기독교 학교의 무용학과에서도 시도되지 않은 부분을 정립시키신 것이다.

이전의 故 조승미 교수님의 빌레장르로는 있었지만, 한국무용 부분으로는 설립되지 않았던 부분을 시도하신 것이다. 이러한 시도가 더욱 어려웠던 것 중의 하나는 한국 춤에서 무속적인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러한 무속적 요소는 한국 무용의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가장 크게 보여지는 부분이 의상과 음악부분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탈피하시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 음악을 최종실 선생님과 함께 작업을 하시면서 전곡 작품을 하셨다고 한다. 이러한 선생님의 노력으로 기독교 무용의 입지가 더욱 커졌으며 좋았고 또한 한양대학교에서 이러한 무용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해본다.

인물탐구 심윤정 동문(93)

“몸을 움직여 표현하는 일은 내 평생의 숙제”



‘1919’ (1999)

요즘 취업난의 난국으로 고민이 많은 재학생들이 많다. 그럼 이 시간을 빌어 무용과를 나와 조명 디자인을 하시는 심윤정 선배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도록 하겠다.

선생님께서는 한국무용 전공으로 한양대를 졸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명으로 전공을 바꾸신 계기가 있으신지?

대학교 4학년 때 무대미술 수업을 받으며 연극학과를 살펴볼 기회가 생겼다. 연극학과는 연출이나 연기뿐 아니라 기획, 무대, 의상, 조명, 분장, 음향, 무대감독 등 공연을 위한 프로덕션의 전과정을 학생들이 이걸 알아가며 해보고 있었다. 그들은 연기나 연출의 한가지 시작에서 뿐 아니라 전체의 과정과 흐름을 이해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구체화하고 보다 이상화하는 능력을 기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해 비해 무용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부분 경험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용수로서의 방향이 아니라 안무 대한 꿈이 있다면 몰라서는 안될 부분들이다. 내가 관심을 가렸던 부분은 무대 위의 이미지에 관한 부분이었다. 무대공간과 움직임이 만들어 내는 이미지 곧 장치와 빛과 무용수의 움직임의 조화를 한꺼번에 상상하게 되는 것이다. 계속 공부를 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했고, 여기서 출발한 것이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조명으로 전공을 바꾸실 때,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하셨는지(또한 전공을 바꾸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으신 경로가 있으시다면)

나는 보다 체계적이고 기본적인 공부가 필요했기 때문에 대학원 진학을 선택했다. 진학을 위해 무대미술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학원을 몇 개월 다녔고, 같은 공연예술의 전공을 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었던 것 같다.

간혹 학부로 편입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현장에 직접 뛰어드는 학생들도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상황에 알맞게 선택해야 할 것이고, 현장의 선배들이나 선생님의 조언이 많은 도움이 되며, 자신이 어떤 경험을 원하는지 잘 판단해야 한다.

조명디자인의 수업은 보통 어떠한 형식이나 어떠한 과목의 수업을 하는지

학부나 대학원이나 ‘조명전공’이라하여 그것만 공부하지는 않는다.

내 경우 대학원에서는 공연 프로덕션에 관한 거의 모든 부분을 공부하였다.

무대 디자인, TV 및 Film 무대 디자인, 무대장치제작, 무대작화, 조명디자인, 무대의상디자인, 의상제작, 무대공간미학, 연극미학, 무대감독, 공연 프로덕션 등 공연 전반에 걸친 모든 것을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배운다.

많은 과제와 공연이 병행되는 것이다. 전공은 그 가운데 자신의 논문주제와 분야를 선택하여 더 심화하는 것이다.

조명수업 또한 이론과 실기가 병행된다. 조명기기나 전기의 기계적인 부분과 빛을 디자인하기 위한 균형법이 다루어진다.

선생님만이 가지고 있는 조명 디자인의 style이라든가, 철학이 있다면

아직 개인적 철학을 이야기하기엔 이르지 않아 싶다. 다만 지금은 자연적인 빛의 변화에 대해 관심이 많고, 그 자연적인 빛의 느낌을 보다 극적인 빛으로 상승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다.

조명 작업이 의뢰가 들어올 때, 무용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는데

우리 나라의 공연들은 대부분 축박한 시간속에서 이루어진다. 작품을 계획하고 구성하는 시점에서부터 모든 디자이너들과의 상의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안정되고 좋은 작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조명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다면

빛은 움직이고 있다. 밝아지거나 어두워지거나, 낮게 혹은 높게 들어오거나, 여기서 보이거나 저 멀리서 보이거나, 빨리 또는 느리게, 그 리듬들이 조합되어 우리를 흥분시킨다. 마치 무용과 같다.

무용공연의 작업을 하실 때, 공연을 하는 것을 보고, 무용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시거나, 전공을 바꾸신 것에 대한 후회 하는 일은 없으신지

몸을 움직여 표현하는 일은 내 평생의 숙제인 듯 싶다. 단순히 움직여서 감정을 발산하는 일이 아닌 관객이라는 대상에게 몸의 움직임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감정을 유발시킨다는 행위는 언제나 매력적인 일이다. 무용공연을 볼때나 보지 않을때나 몸의 움직임이 건, 빛의 움직임이 건, 이미지의 변화이건.

나는 전공을 바꾼다는 말을 내 머리 속에 띄워 본 일이 없다. 다만 보다 넓게 생각하고 싶었을 뿐이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에 후회는 없다.

선생님의 뒤를 이어 조명으로 전공을 바꾸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나,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한가지만 잠깐 담가보지만 말고 이 일이 자신의 손에 익을 때까지는 가보았으면 한다.

예술경영

문화 산업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문화산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핵심 실무 중심 강의를 통해 국내 주요 공연장 및 각 지역 단체의 문화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숙명여자대학교에서 문화예술행정 실무과정 제2기를 모집하고 있다.

2002년 1월 22일에서 4월 2일까지 10주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집 대상은 전공은 불문으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문화예술 관련 기관 종사자나 예술경영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들을 수 있다.

이 강의에서는 예술행정/문화정책의 이해/문화정책 현황과 발전방향/문화예술의 경제학적 이해/문화산업의 이해/정보화와 문화마케팅/극장사/극장경영/공연기획의 이해/공연기획(해외)마케팅 성공사례/전시기획/프로젝트가 있다.

문의사항: 02-710-9207

유아무용지도교사 자격증

무용과 졸업생들의 진로의 폭을 넓히고자 유아무용 특기교사를 뽑는 기회가 주어졌다. 무용을 놀이로서 프로그램화 하여 꼬두리 3기를 뽑는다.

신체표현놀이/ 소품을 이용한 무용놀이/ 신체적성

무용관련 분야 진로



운동/ 창작운동 등의 실기과목과 유아교육과 무용/유아발달단론/ 동작교육의 이론과목의 교육내용으로 서울 꼼두리 체육센터에서 12월 15일부터 12월 29일까지 단기 연수를 한다.

이 단기연수로 공인 사단법인 유아무용지도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유아교육기관의 전임 혹은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해준다.

또한,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유아체육 전공(석사과정)의 입학 특혜를 얻을 수 있다.

문의사항: 02-584-6565, 300-1469, childpe.or.kr

*교직에 관심있는 분들은 동정란을 참고하셔서 교

단에 계신 선배님들의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무용평론

무용평론과 무용이론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무용평론 교실이 우리나라 최초로 12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압구정동 무용 스튜디오 테스에서 개설된다. 이 강의를 통해 무용평론/ 무용미학/ 무용사/ 무용정치학/ 예술론/ 무용영어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무용치료

한국에서 공부해도 미국 DTR(Dance Therapists Registered) 개인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열렸다.

이는 서울여자대학교에서 특수심리치료학과와 표현예술치료학과로 구성된 특수치료전문대학원을 개원하면서 표현예술치료학과에 무용치료 전공이 생긴 것이다.

현재까지는 ADTR과 DTR을 합쳐 무용치료전문가 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세계적으로도 80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전망이 밝은 것으로 생각된다.

무용치료는 무의식중에 나오는 행동을 분석해야 하므로 인간의 움직임에 대한 깊은 직관력과 통찰력을 잘 알아내는 사람이라면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보는 바이다.

기대만큼 일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저를 믿고 뽑아 주셨으니,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학생회장이 되기 위해 열심히 학교 일에 참여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전달하는 학생회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학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기울이며, 우리 무용학과 학우들을 하나로 엮어나가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무용학과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 학우들의 관심과 매서운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시간도 있겠지만, 학우 여러분의 후원과 정성 그리고 학생회 간부와 함께 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천천히 걸어 걸테니 여러분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2학년도 무용학과 학생회장 김지연

학생회를 떠나며

유난히 매서운 한파가 불어닥치던 작년 겨울.

눈처럼 하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듯,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한양대 무용학과의 2001년 계획을 설계하고, 하나하나 실천해가면서 그렇게 일년을 보낸 지금, 무용학과 학생회의 모습이 담긴 그 그림을 바라보노라면 부분 부분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들에 많은 반성과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막막하기만 했던 학생회 일들을 무사히 마무리 짓고 힘든 시간들까지 모두 소중한 순간들로 기억될수 있었던 건, 항상 따뜻한 격려의 말씀과 많은 도움주신 교수님, 그리고 무용학과 선배님들, 동기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양대 무용학과'라는 한 울타리에서 보냈던 소중한 시간들... 저와 보낸 그 시간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좋은 밑거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mail 주소록

졸업생(기나다순)

김명주 myongjookim@hanmail.net

김은정 jolio777@hanmail.net

김신아 rlatsdk@hanmail.net

김윤지 bluewave-97@hanmail.net

민수진 zemtda@hanmail.net

박선영 parksy0124@hanmail.net

박은희 meilove75@yahoo.co.kr

윤미영 bbbn78@hanmail.net

서정록 rock1229@hotmail.net

이규정 kjiLee1004@hanmail.net

이종익 sos1_119@hanmail.net

지제욱 mison57@hanmail.net

장윤기 opal100@hanmail.net

한해옥 hosvban227@yahoo.co.kr

00학번

고정은 jougeun00@hanmail.net

김보라 97929027@hanmail.net

김우경 chumrosa@hanmail.net

백해미 angehyemee@hanmail.net

안지형 dancer-jh21@hanmail.net

윤선화 6162sun@hanmail.net

이미연 myyduni81@hanmail.net

이영림 0035901@hanmail.net

이지혜 82bjou@hanmail.net

인정인 coolinbest@hanmail.net

장선영 shiny-jang@hanmail.net

조하나 onelove0919@hanmail.net

추미희 bugusonye@hanmail.net

최수정 sulilove@hanmail.net

99학번

고은정

김예원 resplendence@hanmail.net

김지연 ju235@hanmail.net

김지연 love-jjyy@hanmail.net

문성경

박영애 pyh29na@hanmail.net

손예순 aesoon76@hanmail.net

신진아 dr-maker@hanmail.net

연지윤 yjilyun@hanmail.net

학생회 소감문

*항상 옆에서 많은 힘이 되어준 재현이, 그리고 미안할 정도로 열심히 일해준 선영이, 우리 학생회 아그들..미연이(김), 미연이(이), 정원이, 지혜, 정은이..다들..너무 수고했구, 고마워~ 2001학년도 무용학과 학생회장 최미정

학생 회장 당선 소감

안녕하십니까?

2002학년도 무용학과 학생회장을 맡게 된 김지연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우리 무용학과의 대표로 뽑아주신 학우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학생회장을 맡아 일해 온 분들이 너무나 잘 해 오셨고, 학교에 행사나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일을 해본 경험이 부족한 제가 여러분의

편집후기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어 축박한 시간에 발행하느라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부족한 내용과 어설픈 문구들로 읽으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셨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처음이니만큼 넓은 아량으로 이쁘게 봐주시구여, 보다 좋은 소식지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독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심 성의껏 읽어 주신 보답으로 소식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저희 편집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소식지 후기를 공모합니다. 소식지를 본 후의 소감과 장단점과 아쉬운 점, 궁금한 것 등등의 의견들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참고하여 개선해서 보다 나은 다음 소식지를 만들겠습니다.

홈페이지 www.kumdance.or.kr

편집부원

백혜미(98), 김예원, 연지윤, 이가현, 조재현, 최미정(이상 99), 이지혜(00), 김수연B(01)